

피혁 의류의 Sleeve Cap Ease 분량에 관한 연구

최 보 략* · 서 미 아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피혁소재를 사용하여 의복을 제작함에 있어서, 소매의 ease 분량 처리시 발생하는 외관상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보통 직물에 적용하는 소매 패턴의 ease 분량을 피혁소재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피혁 소재의 소매산 높이에 따른 적절한 소매 ease 분량을 파악하여 미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소매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가을, 겨울철 수트나 코트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서, 두께가 비슷한 피혁과 모직물을 이용하여, 적정 ease 분량을 설정하기 위한 최대 소매산 높이에 의해 설정된 ease 분량 5cm를 중심으로 소매산 높이 및 소매폭에 변화를 주어 ease 분량을 4cm, 3cm, 2cm, 1cm로 조절한 패턴을 사용하여 피혁과 모직물 각각의 소재별로 9종씩 총 18종의 소매를 제작하였다. 또한 각 소매에 대해 시각적 평가와 기능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소재별로 미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적정 ease 분량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ease 분량에 따른 ease 형상에 대한 시각적 평가는, 먼저, 소매산 높이를 고정하고, 소매폭의 차이로 ease 분량에 차이를 둔 경우, 모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는 ease 분량이 많은 것이 시각적으로 좋은 ease 형상을 나타냈으나, 피혁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는 ease 분량이 적을수록 ease 형상이 좋게 평가되었다. 이와 반대로, 소매폭을 고정하고, 소매산 높이에 차이를 둔 소매의 ease 형상에 대한 시각적 평가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피혁 소재를 사용하여 소매산이 낮은 소매를 제작할 때에는 ease 분량은 1c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소재 및 동일한 ease 분량에 대하여 소매산 높이 변화에 따른 ease 형상의 시각적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모직물의 경우 ease 분량이 많을 때에는 동일한 ease 분량이라 하더라도 소매산 높이가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ease 형상이 좋게 평가되었고, 반면에 ease 분량이 적을 때에는 동일한 ease 분량이라 하더라도 소매산이 낮은 소매가 높은 소매보다 ease 형상이 좋게 평가되었다.

피혁의 경우에서도 ease 분량이 3cm 이상에서는 소매산 높이가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ease 형상이 좋게 나타났으나 모직물의 경우에 비해 그 차이는 적었으며, ease 분량 1cm에서는 소매산 높이가 낮은 소매가 높은 소매에 비해 ease 형상이 매우 우수함을 나타내어, 소매산 높이에 따른 ease 형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소재별 소매폭에 대한 시각적 평가의 결과는 피혁과 모직물이 마찬가지로 소매산 높이

가 $A.H/4+5\text{cm}$ 이고, 소매폭이 상완둘레 $+7\text{cm}$ 인 소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소매폭이 상완둘레 $+2.1\text{cm}$ 인 소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소매폭이 넓은 것이 시각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복의 소재가 가늘, 겨울용 소재이기 때문에 소매폭이 넓은 것이 시각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피혁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는 모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직물에 비해 피혁의 신축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재별 소매산 높이에 대한 시각적 평가의 결과는 모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와 피혁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가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소매산 높이가 가장 높은 소매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소매산 높이가 가장 낮은 소매가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3. 소매의 여유분에 대한 기능성 평가의 결과는, 모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소매폭이 넓은 소매가 기능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혁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 또한 소매폭을 넓게 한 소매가 기능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작 각도에 따른 기능성 평가의 결과는, 모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와 피혁을 사용하여 제작한 소매가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 각도에서 소매산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소매폭에 차이를 두어 ease 분량을 조절한 소매에서는 소매폭이 좁아질수록 기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소매폭을 동일하게 하고, 소매산 높이에 차이를 두어 ease 분량을 조절한 소매에서는 소매산 높이가 낮아질수록 기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4.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미적이면서도 기능적인 피혁의류의 소매 제작을 위한 적정 ease 분량은 $1\sim 2\text{cm}$ 라고 할 수 있으며, 소매산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ease 분량을 $1\sim 2\text{cm}$ 범위로 하고, 소매산 높이가 낮을 경우는 ease 분량을 1cm 이내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매폭은 넓은 것이 기능적이거나, 소매산 높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소매폭은 최소한 상완둘레 $+4\text{cm}$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혁의류 제작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매제작을 위해서, 먼저 소매산 높이가 높은 외출용 정장류 의복 제작의 경우에는 ease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몸체 A.H을 겨드랑이 아래로 늘리거나, 어깨에 패드분을 보충해주어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매산 높이가 낮은 캐주얼 의류에서는 ease 분량을 1cm 이내로 하기 위하여 소매패턴의 소매산 높이를 낮추어서 소매 A.H과 몸체 A.H과의 차이를 1cm 이내로 하여 ease 분량을 줄여주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